

# 木溪 姜渾의 시에 나타난 精神世界

이 구 의\*

## 차 례

1. 머리말
2. 木溪 시의 생성 배경
3. 木溪 시에 나타난 精神
  - 3.1. 寫實的 描寫와 浪漫精神
  - 3.2. 밝은 霧圍氣와 順和精神
  - 3.3. 조용한 遊興과 閑靜精神
  - 3.4. 蕭山한 情緒와 超越精神
4. 맺음말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걸쳐 살다간 목계(木溪) 강훈(姜渾: 1464~1519)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목계가 전형적인 영남 사림파의 학맥을 잇고 있다. 시풍(詩風) 면에서 보면 목계의 시는 여느 사림파 또는 도학파의 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목계의 시는 문학적이며 정감적이다. 둘째 이미치 면에서 보면 어둡거나 침울한 이미지가 많지 않다. 셋째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시는 자연경관에 대하여 읊은 시가 많다. 넷째 그가 주장한 문학과 실제 작시(作詩)는 이원적(二元的)이다. 다섯째 그의 시를 이루고 있는 시어가 비교적 평이(平易)하다.

시에 나타난 정신은, 첫째 사실적(寫實的) 묘사와 낭만정신이다. 둘째 그가 구사한 시어는 그 분위기가 대부분 밝다. 셋째 그의 시에는 그의 온유(溫柔)한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넷째 긍정적 세계관과 초월의 정신이다. 그가 세상의 풍파를 겪고 난 뒤 지은 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월의 정신이 나타난다. 목계 강훈의 시와 시풍을 통하여 우리가 조선 전기·중기의 학파를 사림파와 훈구파, 도학파와 사장파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정신(精神), 시풍(詩風), 낭만(浪漫), 분위기(霧圍氣), 긍정(肯定), 이원(二元)

## 1. 머리말

본고는 목계(木溪) 강혼(姜渾: 1464~1519)의 시의 형식과 내용을 통하여 그의 지향의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계 강혼은 세조 때 태어나 성종연산군중종 세 임금을 섬긴 문신이다. 그의 자는 사호(士浩), 호가 목계(木溪) 또는 동고(東阜), 본관이 진주(晉州)이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풀려났다. 벼슬은 대제학·공조판서를 거쳐 1512년(중종 7) 한성부판윤이 되고, 이어 승록대부에 올라 우찬성·판중추부사에까지 이르렀다. 저서로 『목계일고』가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지금까지 목계(木溪)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신태영과 황의동<sup>1)</sup>의 논문이 전부이다. 신태영의 논문은 목계의 삶을 중심으로 그 행적을 고찰한 것이고, 황의동의 논문은 진주 강씨 문중의 학자들은 고찰하는 가운데 한 부분으로 목계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한 것이다. 이처럼 그의 문학 방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목계가 사림파의 맥을 잇고 있지만, 그들과는 문학 경향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목계 강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의 대본은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17에 실려 있는 『목계일고(木溪逸稿)』이다. 본고의 진행은 인문주의 비평 방법에 따른다.

## 2. 木溪 시의 생성 배경

『목계일고』에 실려 있는 그의 시 작품 수는 5언 율시가 1수, 7언 절구가 10제(題) 14수, 7언 율시가 6제 9수, 장단구가 1수로 도합 18제 25수이다. 목계가 지

1) 申太永, 「木溪 姜渾의 생애와 경론」, 『南冥學研究』 20,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5, 173-199쪽; 黃義東, 「晉州 姜門 유학자들의 학문과 사상」, 『韓國思想과 文化』 50, 韓國思想文化學會, 2009.

은 시 대부분은 7언 시이다. 7언은 5언보다 호흡이 길다. 그가 호흡이 긴 7언 시를 주로 지은 것은 그만큼 그의 성격이 느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7언 율시도 지었지만, 비율 면에서 보면 7언 절구 시가 많다. 7언 율시가 근체시의 표준이지만, 격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길이를 줄여서 절구 시를 지었다.

그가 남긴 시 제목을 보면 강이나 포구 등의 자연 공간이나, 누(樓)·정(亭)·당(堂)·軒(軒)·관(館) 등의 업무 또는 놀이 공간이 대부분이다. 그가 사람에게 지어준 시는 연산군의 명에 의하여 지은 응제 시와 문회(文會) 때 지은 시, 기생에게 지어 준 시, 어떤 스님에게 지어 준 시, 남의 죽음을 애도한 만사가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시는 여느 문집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기생에게 지어준 시이다. 이 시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 관리 및 선비들의 일상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글을 보면 목계의 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진주지(晉州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강혼의 자는 사호이고 호는 목계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재질이 있어, 경사(經史)에 널리 통하였다. 성격이 호방하여 어디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점필재 문하에 출입하면서 당시의 여러 문들과 도의로 사귀었는데, 탁영 김일손수현 권오복과 가장 친하였다.<sup>2)</sup>

위의 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목계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문집의 서문이나 발문, 또는 연보(年譜)를 보면 그 문집의 주인이 어려서부터 총명영오(聰明穎悟)하였다고 한다. 대과에 급제하여 문집을 남긴 사람이 초명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실제로 목계는 대제학<sup>3)</sup>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학식이 풍부하다는 것이 이로써 입증된다.

2) “姜渾字士浩，自號木溪子。生而有異資，博通經史，豪放不羈。及出入佔畢齋之門，與一時諸賢爲道義之交，而金濯纓，權睡軒最善。” 『晉州誌』.

3) 『朝鮮王朝實錄』 중종 2년 윤1월 30일 甲戌 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목계에 대한 기록이 966회 나온다. 연산군이 그에게 시를 지으라고 명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이를 미루어 보면 그의 詩才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또 중종 때에는 대신들이 여러 차례 목계를 탄핵하였으나 임금이 不許하기도 하였다.

둘째 그가 본의이든 아니든 간에 영남 학맥을 잇는 중추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의 스승이 점필재 김종직이었고, 그와 가장 친하였던 사람이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sup>4)</sup>, 뇌계(濡溪) 유희인(俞好仁)<sup>5)</sup>, 수현(睡軒) 권오복(權五福),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이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두 사람은 재주가 뛰어나 20대 초반 나이에 대과 장원 또는 2등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무오사화 때 모두 화를 입었다. 탁영이 부 3편을 지어 목계에게 주기도 하였다.

목계가 점필재의 문하에 들어간 것은 그의 나이 17살 되던 해이다. 그 전에 극 태학(성균관)에 입학하였을 때 그의 거동을 보면, “무술년 2월 선생(목계)이 생동이 되어 태학에 입학하였다. 새로이 입학한 소년들이 선생의 행동거지가 깨끗하고 말투가 당당하여 어른의 기풍이 있는 것을 보고 상중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식견이 있는 사람은 그의 원대한 그릇이 될 것을 알았다.”<sup>6)</sup>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림파는 경술(經術)을 중시하며 문장을 말기(末技)로 생각하였다. 사림파 학자들 대부분이 도학(道學)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이 목계에게도 해당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가 지은 <청파집서문(靑坡集序)>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 ① 삼광(三光)과 오악(五嶽)의 정기(精氣)가 사람에게 모여 문장이 되니, 문장을 짓는 일이 어찌 어렵지 않은가? 살펴보면, 역대 문학에 능한 사람이 많지 않다 고는 못한다.
- ② 그러나 어떤 이는 때를 만나지 못하여 자연 속을 오가며 그 곤궁한 심정을 노

4) “진천군 목계 강문공은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 어려서부터 이미 글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났다. 점필재(佔畢齋: 金宗直) 문하에 들어가서는 마치 큰 화로에 풀무질하여 단련하듯 학문을 연마하였다. 물러나서는 한훤당(寒暄堂: 金宏弼), 일두(一蠹: 鄭汝昌), 수현(睡軒: 權五福) 등과 무너진 기강을 바로세우고 규범에 맞게 행동하여 『시경』 「대아(大雅)」의 문장을 드러내었다.[晉川君木溪姜文簡公, 天才超邁.在髫髻, 已以文辭鳴.既又登畢齋先生之門, 鎔鍊於大爐鞴中. 退則與喧, 蠹, 濯, 睡諸賢周旋劇刮, 優游於軌塗之內, 而綽乎其大雅之章矣.]” 郭鍾錫, <木溪逸稿序>.

5) 목계가 지은 <뇌계 유희인을 애도함(挽俞濡溪 好仁)>이라는 만사가 그의 『목계일고』에 실려 있다.

6) “戊戌春二月, 先生年成童, 選入太學. 新學少年, 見先生動止侃侃, 言辭堂堂, 儼然有長者風, 憚與相從, 而識者知其爲遠大之器.” 周世鵬·魚得江, <摭遺> (姜渾, 『木溪逸稿』 卷2).

래하여 그 지기(志氣)를 드러내었다. 붓을 들어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을 그려내기도 한다. 세속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그윽하고 기이한 곳을 찾아다니며 그 정화를 발휘하여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큼 밝은 빛을 드리우니 그 마음 씀이 참으로 부지런하다 하겠다.

- ③ 그러나 경륜이 주밀하고 당대에 사업을 펼쳐 역사에 그 명성이 훌륭한 임금을 만나면 문장은 오히려 하찮은 일이 된다.
- ④ 대개 문장과 사업은 도에 바탕 하여 영원히 전하는 것이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겸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을 후세에 전한다면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①에서는 목계가 문장은 우주의 정기가 모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곧 인간과 자연이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유가의 일반적인 자연관 또는 천명관이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우주관이다. 목계의 자연관이 유가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는 또 이 우주의 정기를 모아 글로 표현한 문장가들이 역대로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사실이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수많은 시인 또는 문장가들이 있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수많은 문학가가 나왔지만 그 문학가들은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하였다. ②에서 알 수 있듯이 불우한 사람은 자신의 곤궁한 심정을 노래하여 그 지향의지를 드러낸다. 그들이 때를 만나 출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림에 묻혀 오히려 문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현실에 참여 하지 못하는 무리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③에서처럼 때를 만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륜을 펼쳐야 한다. 더욱이 훌륭한 임금을 만나면 문장(문학)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 ④에서는 그가 문장과 정치가 도를 바탕으로 하여 영원히 후세에 전하는 것이 같기도

7) ①“三光五嶽之氣，鍾於人而爲文章，文章之作，豈不難矣哉。竊觀歷代能文之士，不爲不多。②然或不遇於時，嘯傲雲林，以吟哦其窮愁。發揚其志氣，方其操觚弄翰，雕鏤肝腎。擺落塵穴，探索幽奇，發爲精華，務以驚世駭俗，垂光流耀，其用心可謂勤矣。③然自其遭時遇主，經綸密勿，展事業於當世，流聲光於竹帛者視之，則文章猶爲餘事耳。④蓋文章之與事業，皆本乎道，其傳於不朽則同，而有大小之不同。苟能兼二者而有之，以名世而傳後，豈不偉歟。”姜渾，『木溪先生逸稿』卷1，序跋（『韓國文集叢刊』17，165쪽）.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결합 수가 없다. 그가 말하였듯이 문장과 정치를 결합 수 있으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를 보면, 그가 문학과 정치를 결합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을 두고 보면, 정치보다는 문학이 우위에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문학관은 여느 사람과 또는 도학파의 문학관과 일치한다. 겉으로 보면, 그의 문학관이 다른 성리학자들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풍(詩風) 면에서 보면 그의 시는 여느 사람과 또는 도학파의 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의 시는 사장(詞章)에 치우친 감이 있다.

첫째 목계의 시에는 진지하거나 심각한 면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시는 철리적(哲理的)이거나 도학적(道學的)인 면보다는 문학적이며 정감적(情感的)이다. 그의 시에는 이성(理性)이 우위(優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우위에 있다. 그의 〈합천 매월루(陝川梅月樓)〉<sup>8)</sup> 세 수 가운데 그 첫 번째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淡淡青山近女牆	담담히 푸른 산 여장 가까이 있고,
雨餘春水漲橫塘	봄비가 온 뒤라 연못물이 불어났네.
村園處處柴扉掩	시골마을엔 집집마다 대문 닫혔고,
桃李陰中一逕荒	복사, 오야 그늘 밑으론 건천 셋길.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 속에는 철학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이 없다. 그냥 자아 자신의 눈에 보이는景物(景物)을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기구(起句)에서는 푸른 산이 여장(女牆), 곧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가까이에 있다고 하여 시의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 때 자아의 시선을 수평과 수직을 오가고 있다. 승구(承句)에서는 자아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봄비가 온 뒤여서 연못물이 불어났다고 하였다. 여기서 공간적 배경은 청산과 여장 부근의 연못가고, 시간적 배경은 봄이다.

전구(轉句)에 가면 자아의 시선이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 곧 마을에 있는 집으로 향한다.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에 일하러 나갔다는 것을 던지시

8) 姜渾, 『木溪先生逸稿』 卷1, 詩 (『韓國文集叢刊』 17, 163쪽).

암시하고 있다. 결구(結句)에 가면, 봄이 되자 복사꽃과 오야 꽃이 피어있는 아래로 사이길이 있다. 길은 소통한다는 의미이다. 곧 자연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

둘째 위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시에는 어둡거나 침울한 이미지가 많지 않다. 그의 시에는 도학자들이 표출한 우환의식(憂患意識)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시는 유흥(遊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시는 놀이 공간을 제재로 하여 읊은 시가 많다.

셋째 위의 <청과집서문(靑坡集序)>을 보면 그의 문학관은 경술을 중시한 도학파의 문학관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의 시 작품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곧, 그의 문학관과 실제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그의 문학관과 문학은 이원적(二元的)이다. 그는 작가가 좋은 시대를 만났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작품과 문학관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시대를 못 만난 작가는 문학하는 데 많은 힘을 쏟지만, 좋은 시대를 만난 작가는 문학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넷째 그의 시를 이루고 있는 시어가 비교적 평이(平易)하다. 그가 어려운 고사(故事)나 단어(單語)를 쓰지 않고 시를 쉽게 지었다. 이는 곧 그의 언어구사능력(言語驅使能力)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음의 <청심헌(淸心軒)>이라는 시를 보면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孤舟風定泊淸江	배 한 척 잔잔하고 맑은 강가에 이르니,
潭影沈沈搖畫牕	물속 깊숙이 그림자 화창이 흔들흔들.
一帶長林橫薄霧	길게 늘어선 숲은 뿌연 안개 속에 잠겨,
夕陽鷗鷺下雙雙	해저물녘 해오라기가 쌍쌍이 내려앉네.

이 시의 자주(自註)에는, “진주 함옥헌 동쪽에 있는데, 병마절도사 이수일이 지었다.”<sup>10)</sup>고 하여 청심헌의 위치와 그것을 창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기구에서 결구까지를 보면, ①아주 어려운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②자아의

9) 姜渾, 『木溪先生逸稿』 卷1, 詩 (『韓國文集叢刊』 17, 163쪽).

10) “軒在晉州涵玉軒東, 兵使李守一所建也.” 姜渾, 『木溪先生逸稿』 卷1, 詩 (『韓國文集叢刊』 17, 163쪽).

눈에 보이는 경관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여 억지로 꾸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③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회화성이 뛰어났다. 이 시를 이루고 있는 시어(詩語)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용사(用事)도 하지 않아 금방 보아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 3. 木溪 시에 나타난 精神

목계가 남긴 시는 대부분 그가 치사(致仕)하고 난 뒤의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작 연대를 고증할 길이 없지만, 다음 글로 미루어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늙지도 않았는데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복건(幅巾)을 쓰고 시를 읊으며 자신의 뜻을 즐기면서 한 평생을 마쳤다. ...(하략)...<sup>11)</sup>

위를 보면 목계가 무오사화 때 죽음은 면하였지만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그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다가 노모의 봉양을 위하여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낙향(落鄉)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가 54살이었다.<sup>12)</sup> 그가 재직 중이거나 치사하고 난 뒤 여행하면서 지은 시가 지금 남아 있다. 이 시들을 통하여 그의 정신세계가 어떠한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 3.1. 寫實的 描寫와 낭만정신

목계가 남긴 시 대부분은 그 묘사가 솔직하다.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려 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은대선(銀臺仙)><sup>13)</sup>이라는 시 2수는 그가 관직에 있

11) “乃未老而歸休於東臯之上，幅巾嘯詠，徜徉樂志以卒歲。...(하략)...” 郭鍾錫，〈木溪先生逸稿序〉(『韓國文集叢刊』 17, 159쪽, 『木溪先生逸稿』).

12) 그가 1518년 노모의 봉양을 핑계로 사직을 청하자 중종이, “이제 상소를 보니 정의가 매우 간절하고 또 재삼 와서 청하기 때문에 부득이 허락한다(今見上疏，情甚切至，又再三來請，不得已許之)”고 하였다. (『中宗實錄』 권33, 중종 13년 5월 6일 甲辰 4번째 기사).

13) 姜湏, 『木溪先生逸稿』 卷1, 詩 (『韓國文集叢刊』 17, 163쪽).



을 지은 것이다. 2수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姑射仙姿玉雪肌	막고야 신선 모습에 옥설 같은 피부,
曉總金鏡畫蛾眉	이른 아침 거울보고 눈썹을 그리네.
卯酒半酣紅入面	묘주 반잔 마셨는데 얼굴 붉어오고,
東風吹鬢綠參差	불어오는 봄바람에 수염이 휘날리네.

이 시의 원주(原註)에 “(은대선은) 성주 기생이다(星州妓).”라 하고 있다. 기구(起句)에서 자아가 은대선의 모습을 막고야와 같다고 하였다. 고야선(姑射仙)은 막고야 산에 산다는 신선이다.<sup>14)</sup> 이처럼 청초한 은대선이 이른 아침에 화장을 하고 있다. 여자가 화장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 하나이다. 기구와 승구에서 자아가 사실적으로 은대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만큼 자아의 심정이 낭만적이다.

전구에 가면, 구체적인 주체가 없다. 하지만, 결구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묘주(卯酒)를 마신 사람이 자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침에 자아가 이 묘주를 마셨다. 술기운이 자아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한다. 이 때 봄바람이 자아 자신의 수염을 휘날린다. 이 시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 묘사가 사실적이다. 기구와 승구, 전구와 결구가 서로 짝이 되고 있다. 앞의 두 구는 기생 은대선의 모습을, 뒤의 두 구는 자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기구와 승구의 묘사에서 우리는 이 시구(詩句) 안 들어 있는 낭만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심수경(沈守慶)의 『견한잡록(遣閑雜錄)』에도 은대선을 제재로 한 목계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시를 보면 목계가 관기인 은대선과는 아주 긴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扶桑館裡一場歡	부상의 연관에서 한바탕 기쁨을 나누고,
宿客無衾燭燼殘	깜박이는 등잔 아래 이불 없이 묵었네.
十二巫山迷曉夢	새벽꿈에 무산 열두 봉우리가 희미한데,
驛樓春夜不知寒	봄이라 역사에 묵어도 추운 줄을 몰랐네.

14) 『莊子』〈逍遙遊〉 편에, “막고야 산에 신선이 있으니 피부가 얼음과 눈 같다.〔藐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고 하였다.

부상(扶桑)은 현재 김천시(金泉市) 부상면(扶桑面)이다. 기구와 승구는 자아와 은대선이 부상역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부상관(扶桑館)이라는 단어에서 그가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의 신분으로 누구와 한 바탕 기쁨을 나누었다. 그 누가가 바로 은대선(銀臺仙)이다.<sup>15)</sup> 남녀 간에 서로 기쁨을 나누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한밤중에 등잔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이불 없이 묵었지만, 자아가 춥지 않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의 마음 속에 열정, 또는 정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속에 열정이 없으면 여름에도 춥다고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구와 결구를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다. 자아가 새벽에 꿈을 꾸다. 곧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무산에 대한 꿈이다. 이 말은 하룻밤 사이 자아가 많은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의 경험은 자아와 은대선과의 환락이다. 마음속에 기쁨과 열정이 있었기에 계절이 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불 없이 하룻밤을 지내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시는 사실적이면서 낭만 정신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 이 시에는 제목이 없다.

부상(扶桑) 역(驛)과 성주(星州)는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수령이 그 고을에 부임하면 그 고을 관기(官妓)들이 그 관리에게 수청드는 것이 기본이었다. 목계가 경상도 관찰사였기에 경상도 지방에서는 어디를 가나 관기들이 그에게 수청을 들었다. 술자리에 앉아 술시중을 드는 것을 우리는 청수청이라 하고, 잠자리까지 모시는 것을 살수청이라 한다. 아무리 기생이지만 함부로 살수청을 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관청의 관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살수청을 든다. 관리가 기생의 마음에 들려면, 첫째 기풍이 있어야 한다. 둘째 풍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그 기생을 압도할만한 인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기생이 관리의 마음에 들려면, 첫째 가무(歌舞)를 잘 하여야 한다. 둘째 시를 잘 지어야 한다. 셋째 글씨와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이러한 외적 요인 말고도 관리와 기생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야 한다.

목계와 은대선이 서로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에 은대선이 목계에게 친침(薦枕)

15) 실제로 목계가 酒色을 대단히 좋아하였다.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1519) 5월 15일 丁未 2번째 기사 참조.

하였다. 그가 기생인 은대선(銀臺仙)에게 줄 때 그 마음은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러한 시가 나올 수 없다. 은대선이라는 이름 자체로 그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여기서 은대는 관리들의 명령을 따르는 신선 같은 사람을 말한다. 은대선이라는 기생의 품행이 다른 기생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그의 시에는 첫째 묘사가 사실적(寫實的)이다. 자아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둘째 자아가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곧, 자아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다. 셋째 자아의 긍정적 세계관을 통하여 그의 낭만 정신이 드러나고 있다.

### 3.2. 밝은 靄圍氣와 順和精神

목계가 남긴 시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 밝다. 먼저 <진주 기생에게 줌(贈州妓)<sup>16)</sup>이라는 시를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高牙大纛三軍帥	고아와 대독으로 삼군 지휘하는 장수,
黃卷靑燈一布衣	황권과 청등을 벗 삼는 초라한 선비.
方寸分明涇渭在	마음속에는 분명 맑고 흐림이 있건만,
不知丹粉爲誰施	누구를 위해 붉은 분가루를 발랐는지.

위 시의 기구(起句)와 승구(承句)에서는 은유법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곧 고아(高牙)와 대독(大纛), 황권(黃卷)과 청등(靑燈)이 그것이다. 고아와 대독은 상아와 무소꼬리로 장식한 대장기(大將旗)를 말한다. 이와 대가 되는 황권과 청등은 등불을 켜놓고 책을 읽는 선비이다. 기구의 분위기는 높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다. 곧 이미지가 밝고, 힘 있고, 진취적이다. 승구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며 믿음의 있다. 황권의 황(黃)과 청등의 청(靑)이 믿음

16) “晉陽誌曰，姜判書渾少時畱州妓，方伯入州，以其妓薦枕，公作一絕書於妓之衣袖，方伯見之，問誰所作。妓以公對，召見大異之。遂勸令學，竟以文章名”。姜渾，『木溪先生逸稿』卷1，詩(『韓國文集叢刊』17, 164쪽).

과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오색(五色) 가운데 황색이 오상(五常)에서는 믿음(信)에, 오행으로는 토(土)에, 오방(五方)으로는 중(中)에 해당한다. 겉으로는 기구가 승구보다 우위에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승구의 상황이 기구보다 훨씬 더 희망적이다.

전구에서, 경위(涇渭)는 옹고 그림과 청탁(淸濁)에 대한 분별이 엄격함을 이르는 말이다. 경수(涇水)는 물이 흐르고, 위수(渭水)는 물은 많다.<sup>17)</sup> 경수와 위수가 대를 이루지만, 앞의 분명(分明)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결구에서도 역시 그 이미지가 화려하다. 붉은 분가루(丹粉)에서 그러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기구의 주체는 화려한 깃발 내세우고 위엄 있게 부임하는 진주 고을 사또(장수)이고, 승구(承句)의 주체는 등잔불을 밝혀 책을 읽는 자아 자신이다. 기구의 사또는 힘 곧 권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승구의 자아는 권세나 지위가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구의 사또가 승구의 자아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부임하는 사또는 나이가 들었고, 책을 읽는 자아는 젊다. 곧, 사또의 나이가 들어 앞으로 희망이 없지만, 자아는 젊기 때문에 장래가 창창하여 희망적이다.

전구와 결구에서, 자아가 진주 기생이 마음속으로 자신을 부임하는 사또보다 더 좋아한다고 확신한다. 자아가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동시에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생이 의무적으로 화장을 하고 사또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기생의 역할이다.

이 시는 당시 관리와 양반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같으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당시는 양반이나 관리들의 외도가 공공연히 묵인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의 한 면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이어서 그가 젊었을 때 지은 <응제(應製)><sup>18)</sup>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17) “涇以渭濯，湜湜其沚。”『詩經』，邶風〈谷風〉第3章.

18) 姜渾，『木溪先生逸稿』卷1，詩（『韓國文集叢刊』17，164쪽）.

清明御柳鎖寒煙	청명절에 대궐의 버들 찬 내에 잠기고,
料峭東風曉更顛	쌀쌀한 봄바람 새벽되어 더욱 싸늘해.
不禁落花紅糲地	지는 꽃이 땅에 떨어져 붉게 쌓이고,
更教飛絮白漫天	나부끼는 흰 버들개지가 하늘을 덮네.
高樓隔水裹珠箔	건너편 높은 누각 구슬발 겹어 올리고,
細馬尋芳躡錦韉	꽃구경 가는 좋은 말 비단안장 빛나네.
醉盡金樽歸別院	금동이 술에 취해 별원으로 돌아오니,
綵繩搖曳畫欄邊	단청한 난간 가엔 오색그림이 나풀거리.

이 시에 붙어있는 자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폐주...(중략)...목계 강훈이 이조정랑으로 있을 때, <일찍 한식날 원림에는 삼월이 저물어가고, 비바람에 꽃잎 떨어지니 새벽녘이 싸늘해>라는 시제(詩題)...(중략)...목계의 시가 으뜸을 차지하였다.”<sup>19)</sup>고 한다.

연산군이 신하들에게 시제(詩題)를 내어 시를 짓게 한 때가 한식날이다. 이 <응제> 시에서 목계가 으뜸을 차지하였다. 이는 그의 시작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목계는 탁영 김일손과 같이 시에 뛰어났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있다.<sup>20)</sup>

위 시는 7언 율시로 이루어졌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근체시에 표준이 7언 율시이다. 신하가 임금 앞에서 지은 시이니, 그 형식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시가 7언 율시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먼저 수연(首聯)을 보면, 시간 배경은 계절로는 이른 봄이요, 하루로는 새벽이다. 이른 봄 새벽이니 싸늘하다. 비록 날씨가 싸늘하지만, 겨울의 추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봄과, 새벽이라는 시어(詩語)는 생동, 발전, 희망, 긍정, 질서, 밝음 등의 의미가 있다. 한식절(寒食節)을 전후하여 절기로 청명절(清明節)이 있다. 이

19) “廢主姜木溪爲吏曹正郎，嘗以寒食，園林三月暮，落花風雨五更寒爲題，命近臣製進，木溪詩爲魁。” 실제 이 내용은, 許筠의 『惺所覆瓿藁』 卷25 說部 4, 『惺叟詩話』와 『惺所覆瓿藁』 卷26 附錄, 『鶴山樵談』에 실려 있다.

20) <濯纓年譜>(金駟孫, 『濯纓集』); <摭遺>(姜渾, 『木溪逸稿』) 등.

때가 되면 만물이 생동한다.

함련(頷聯)에 출구(出句)를 보면, 자아가 떨어지는 꽃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 꽃이 지는 것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꽃이 지지만 열매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꽃이 열매를 위하여 그 자리를 양보한다. 자아가 진 꽃이 땅에 붉게 쌓였다고 하였다. 꽃은 화려하다. 붉은 색은 정열을 의미한다. 붉은 색은 오행 가운데 '화(火)'에 해당한다. 계절로 말하면 붉은 색은 여름을 상징한다. 꽃, 붉음은 수연의 청명(淸明)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다. 청명이 신생을 의미한다면 함련의 붉은 꽃은 성장을 의미한다. 대구(對句)에 가면, 자아가 버들개지가 하늘을 덮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버들개지이다. 이 버들개지를 자아는 흰 솜이라 하였다. 솜은 부드러우면서 따뜻하다. 이 단어는 공감각(共感覺), 곧 시각과 촉각적 이미지를 함께 지니고 있다.

위의 두 연이 자아가 본 주변의 경관을 묘사한 것이라면, 아래의 경련과 미연은 자아와 자아의 행동을 묘사하였다. 경련(頸聯)에서는, 자아가 대궐 마당을 지나 건너편에 있는 누각에 올랐다. 그 누각에는 주렴(珠簾)이 쳐져 있다. 고루(高樓), 주박(珠箔) 등의 시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 대구(對句)의 세마(細馬: 細鳥馬), 심방(尋芳), 금천(錦纏) 등은 위대하고, 고귀하고, 화려하고, 위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아가 누각에 올라 화려한 장식을 한 명마를 타고 꽃구경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그 말을 탄 사람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대궐 안에서 비단 안장으로 장식한 좋은 말을 타고 갈 사람은 고귀한 분이다. 시가 응제(應製) 시이기에 그 말을 탄 주인공이 임금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연(尾聯)에 가면, 자아가 꽃구경을 마치고 별원(別院)으로 돌아왔다. 자아가 그냥 꽃구경만 한 것이 아니다. 금동이의 담긴 술을 실컷 마셨다. 금준(金樽)은 고귀함을 상징한다. 황금색은 임금을 상징한다. 임금이 입는 곤룡포(袞龍袍)가 황금색이다. 자아가 금 동이에 담긴 술을 마셨다고 하였으니, 그도 귀한 신분이다. 대구에 가면, 자아가 별원에 돌아와 주위를 살펴본다. 난간을 보니 단청을 하였고, 화려하게 오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 그림이 나풀거리고 있다.

이처럼 이 시에는 절망적이거나 어두운 이미지가 전혀 없다. 밝고, 화려하고,

고귀하고, 진취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 시가 응제 시이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둘째 자아, 곧 목계의 정신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정신이 밝으면서 순화(順和)를 지향하였기에 이러한 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

### 3.3. 조용한 遊興과 閑靜정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목계의 시는 자연경관이나 인공구조물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 많다. 이에 해당하는 시는 유흥(遊興)과 관련된 것이 많다. 누정에 올라가 주변을 완상하면서 시를 짓거나 강에 배를 띄워 선유(船遊)하면서 시를 지었다. 그의 <김해 황산강에 붙임(題金海黃山江)><sup>21)</sup>이라는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泊舟金海府	김해부에 이르러 배를 대게하고,
却望晉陽山	고개를 돌려 진양산을 바라보네.
納納雲天遠	구름 속의 고향은 멀기도 하건만,
茫茫水國寬	강물 넘실넘실 아득히 흘러가네.
江湖今夜興	오늘밤엔 자연의 흥취가 일어나,
琴酒此生閒	거문고에 술에 이내 몸 한가롭네.
明日蓬萊島	내일은 봉래도(蓬萊島)에나 가서,
尋真學鍊丹	신선을 찾아서 연단술을 배울까나.

이 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해(金海) 주위를 흐르고 있는 황산강(黃山江)을 제재로 하여 지은 시이다. 경상남도 양산과 김해 지방을 관통하는 낙동강을 황산강이라 한다. 신라 시대 최치원의 <황산강 임경대(黃山江臨鏡臺)>라는 시도 있다.

먼저 수연을 보면, 자아가 배를 타고 김해부에 도착하였다. 자아가 직접 노를 저은 것은 아니다. 자아가 탄 배가 김해부에 도착하자, 그가 진양산을 바라본다.

21) 姜渾, 『木溪先生逸稿』 卷1, 詩 (『韓國文集叢刊』 17, 164쪽).

진양산(晉陽山)은 곧 진양(晉陽: 晉州)에 있는 산, 자아의 고향 산이다. 자아 자신의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고향인 진양을 그리워한다. 수연의 출구 김해부와 대구(對句) 진양산이 대(對)를 이루고 있다. 이 연에서는 공간 배경만 나타날 뿐 시간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합련(頷聯)에 가면 자아의 감회가 한층 더 깊어진다. 자신의 고향이 구름 밖 아득히 먼 곳에 있다. 실제로 김해부에서 진주까지는 아주 먼 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자아가 아득히 멀다고 하였다. 그것은 자아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나그네는 정처가 없다.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로운 감이 있다. 출구의 유심(有心)과 대구의 무심(無心)이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또 출구의 납납(納納)과 대구의 망망(茫茫)은 쌍성(雙聲)과 첩어(疊語)로 대를 이루고 있다. 이 두 첩어는 의태어(擬態語)와 강조(強調)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련(頸聯)에 가면, 자아가 오늘밤 자연의 흥취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시간 배경은 저녁 또는 밤이다. 악공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가운데 술을 마신다. 이 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아 혼자 술을 마시지는 않는다. 반드시 자아 곁에는 그의 지인이나 벗이 있다. 벗들과 모여 앉아 유흥을 즐기니 자신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없다. 수연에서 잠시 그가 고향을 생각하였지만, 그 근심은 곧 사라져 버렸다. 이내 몸이 한가롭기만 하대(此生閒)는 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미연에 가면, 자아의 생각이 한층 더 심화된다. 봉래도, 신선(眞), 연단(鍊丹)과 같은 시어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세 단어는 도교와 관계있다. 자아가 비록 이런 말을 썼지만, 그가 도교에 심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자아의 마음이 걱정 없이 한정(閑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아가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물욕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시 가운데 〈성주 임풍루(星州臨風樓)〉<sup>22)</sup> 4수 가운데 그 첫 번째를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22) 姜渾, 『木溪先生逸稿』卷1, 詩(『韓國文集叢刊』17, 164쪽).



雨餘江漲沒蒿來	비온 뒤 강물 불어 쭉대 잠겨오는데,
倚柱觀瀾亦壯哉	기둥에 기대 물결 보니 또한 장엄해.
疊浪全籠青草堤	물보라 온통 풀 우거진 제방 감싸고,
連峯半入白雲堆	뭇 봉우리 흰 구름 속에 반쯤 잠겨.
欲携短棹乘漁艇	짧은 노를 가지고 고깃배 타고 가서,
思把脩竿上釣臺	긴 낚싯대 들고 낚시터 올라가고 파.
蕭灑十年江海志	해맑게 십년 동안 자연 속 노닐 생각,
今朝發興酒三杯	오늘 아침 흥 나서 술 석 잔 마시네.

이 시도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누각을 제재로 하여 지은 시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누정은 놀이문화와 관련이 있다. 누정에서는 주로 시회(詩會)나 연회(宴會)를 베풀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수연과 함련이 한 부분을 이루고, 경련과 미연이 다른 한 부분을 이룬다. 율시의 일반 작법은 수연에서 경치를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에서는 자아의 관념을 묘사하고, 마지막 미연(尾聯)에서 자아의 생각을 매듭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점에 비추어 보면, 이 시는 약간 변형되었다.

먼저 수연을 보면, 출구에서 자아가 비가 그친 뒤 강물이 불어 쭉대가 잠겼다고 하였다. 쭉대는 강둑에서 자란다. 곧, 강물이 많이 불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대구에서, 이 광경을 자아가 바라보고 있다. 자아가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보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느낀다. 자아가 있는 곳이 임풍루(臨風樓) 위이다. 자아의 시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함련의 출구에서도 자아가 불어난 강물을 묘사하고 있다. 첩랑(疊浪)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물줄기가 풀이 우거진 제방을 온통 휘감고 흐른다. 전농(全籠)이라는 단어에서 그 광경을 실감할 수 있다. 대구에 가면 봉우리가 모두 구름에 잠겨 있다고 하였다. 곧, 비가 그쳐 날씨가 개어 가는 과정을 자아가 묘사하고 있다. 창(漲)·난(瀾)·장(壯)에서 넓고, 크고, 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 청초(靑草)·백운(白雲) 등에서는 맑고, 깨끗하고, 희망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

경련에서는 자아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노가 짧다는 것은 배가 작다는 뜻이

다. 작은 고깃배에서 자아가 소박하면서도 한가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對句)의 긴 낚싯대는 강태공이 그러하였듯이 세월, 또는 뛰어난 인재를 낚는 것을 의미한다. 출구의 짧은 노와 대구의 긴 낚싯대가 대를 이루고 있다.

미연에 오면, 자아의 희망이 나타난다. 그 희망은 출세하거나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자아가 욕심을 버리고 자연을 벗 삼으니 흥이 절로 난다. 흥에 겨우니 그 흥을 돋우어 줄 술이 없을 수가 없다. 이처럼 자아가 삶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오욕(五欲)이 줄어들었다. 그러니 자아가 나쁜 마음을 막고 타나고난 본성을 지키는 한사존기성(閑邪存其性)의 경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

### 3.4. 蕭山한 정서와 超越정신

목계의 시를 보면 그 분위기가 들뜨거나, 힘이 있거나, 웅장한 경우가 그다지 없다. 그의 많은 시에서 차분하면서 자연을 관조하는 초월의 정신이 녹아 있다. 여기서 초월이라는 말은 도교에서 말하는 속세를 완전히 벗어나 무위자연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욕심을 최대한 줄인다는 의미이다.

조선 시대는 선비, 곧 유학자라 하여 유학만 주장하고 다른 사상을 배척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이전 신라나 고려 시대는 말할 것도 없다. 위대한 선비치고 절에 가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목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가 남긴 시가 많지는 않지만 그도 승려와 교류하였다. 다음의 〈인 스님에게 줌(贈印上人)<sup>23)</sup>〉이라는 시에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問渠何事苦求詩	문노니 무슨 일로 애써 시를 구하나,
妙在難言人不知	사람들 모르는 묘미 말하기 어려워.
半壑松聲僧定後	스님 정좌한 뒤 골짜기엔 솔바람 소리,
滿樓山色雪晴時	눈 개자 누각 가득 산 빛 아름다워.
林寒幽沼凝冰早	숲 속 차가운 날씨에 못물 일찍 얼고,
寺迴疏鍾出洞遲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 동구에 은은히.

23) 姜渾, 『木溪先生逸稿』 卷1, 詩 (『韓國文集叢刊』 17, 165쪽).

此日逢君吟好景    오늘 그대를 만나 좋은 경치 읊으니,  
 佗年相憶鬢如絲    이 다음에 늙어서도 서로 기억하리라.

이 시 전체의 분위기가 차분하면서 조용하다. 목계가 〇인, 또는 인〇 스님을 만나 그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〇인, 또는 인〇은 어떤 스님의 법명이다. 수연을 보면, 출구는 마치 성당(盛唐) 때의 시인인 이백(李白)의 〈산중문답(山中問答)〉<sup>24)</sup>이라는 시의 기구(起句), ‘문노니, 그대 왜 푸른 산에 사는개間余何事棲碧山』와 비슷한 결구이다. 이백의 시가 상대방의 물음에 자신의 대답이라면, 목계의 시는 자아가 상대방에게 묻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스님이 자아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대구에 있다. 그것은 시속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묘미(妙味)가 있기 때문이다. 선비와 스님이 시를 주고받는 일은 그 당시에는 흔히 있었다. 서로 세계관이 다르지만 시로써 소통하였다.

함련을 보면, 스님이 좌선하고 있다. 이 좌선과 어울리게 산골짜기에서 솔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솔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대구에 가면 이 시의 시간 배경이 나타난다. 눈이 갠다고 하였으니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겨울이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산사(山寺)이다. 산사에 있는 자체가 번뇌와 떨어져 있다. 계절은 겨울, 솔바람이 불어오면 세상의 욕심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세상의 욕심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니 자연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 대구에서 산 빛이 아름답다고 한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경련에서는 자아가 머물고 있는 절 주위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날씨가 추운 산속이라 못물이 일찍 얼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임(林)·유(幽)·빙(氷) 등은 그 이미지가 그다지 밝지 않다. 이들은 소슬하고 고즈넉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온다. 이 연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적 이미지가 모두 나타난다. 이 경련은 자아 주변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

24) 〈산속에서 묻고 답함(山中問答)〉 이백(李白)

間余何事棲碧山    문노니,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는가,

笑而不答心自閑    웃으며, 대답은 않고 마음 욕심 없어.

桃花流水杳然去    복사꽃 물에 띄워 아득히 흘러 보내니,

別有天地非人間    이곳은 별천지라 인간 세상이 아닐세. (『全唐詩』 卷178-5).

다. 이러한 묘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아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을 초월하였기 때문이다.

미연에서는 자아의 다짐을 묘사하고 있다. 출구에서는 자아가 스님과 만나 좋은 경치를 읊은 시를 지은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는 수연 출구와 서로 의미가 통한다. 수연 출구의 스님이 시를 구하는 것에 대한 자아의 해답이다. 이 시는 수미(首尾)가 쌍관(雙關)하고 있다. 대구에 가면, 자아가 오늘의 경치를 읊은 일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다짐을 하는 상대가 바로 스님이다. 다음의 <용궁부취현(龍宮浮翠軒)><sup>25)</sup>에서도 자아의 욕심 없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高樓一宿覺清閒	누각에 하룻밤 묵으니 마음 청한해,
身在煙林積翠間	몸은 푸르른 자연 가운데 있다네.
夜雨正佳晴亦好	밤에 비가 와도 좋고 개도 좋은데,
朝來雲捲出青山	아침에 구름 걷히니 청산이 나오네.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높은 누각이고 시간적 배경은 아침이다. 자아가 높은 누각 위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맑아 사심(邪心)이 없다. 각(覺)과 청한(淸閒)이라는 시어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다. 마음이 맑아 사심이 없는데, 몸이 푸른 자연 속에 있다. 푸른 자연 같이 자아의 마음과 몸이 모두 맑고도 깨끗하다.

전구(轉句)에서, 자아의 마음이 이렇게 때문에 밤중에 에 비가 오든지 개든지 이에 상관없이 모두 좋다. 정(正), 가(佳), 청(晴), 호(好)나 결구(結句)의 조(朝), 청(靑), 산(山)이 서로 비슷한 이미지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곧, 이미지가 바르고, 아름답고, 맑고, 좋고, 산뜻하고, 푸르다. 자아가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자아의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곧, 자아의 욕심 없는 마음에서 이러한 시가 나왔다. 그의 <사인의 사련정에 붙임(題舍人司蓮亭)<sup>26)</sup>>이라는 시에서도 자아의 이러한 정신이 드러나고 있다.

25) 姜渾, 앞의 책, 같은 곳.

26) 姜渾, 앞의 책, 같은 곳.

竹葉清尊白玉杯 죽엽청 좋은 술 백옥 술잔에 따라놓고,  
 舊遊蹤跡首空回 지난날 사귄 친구 기웃기웃 찾았다네.  
 滿庭明月梨花樹 뜰 가득 밝은 달이 배나무에 걸렸는데,  
 爲問如今開未開 옛날도 지금처럼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이 시의 제목에서 보면, 사인(舍人)의 사련정에 붙인다고 하였다. 사인은 조선 시대 의정부에 소속된 정 4품 벼슬이다. 목계가 현재가 아닌 옛날 사인 벼슬을 하였던 어떤 사람의 사련정이라는 정자를 제재로 하여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앞의 두 수의 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기구(起句)를 보면, 앞의 시에 나오지 않았던 술이 등장한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그런데 자아가 가지고 간 술이 죽엽청(竹葉淸)이다. 곧, 대나무 잎으로 만든 청주란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나무(竹)와 맑음(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글자에 곧고도 맑은 술, 곧 마음을 곧고도 맑게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승구(承句)에 가면, 자아가 이 술을 들고 옛 친구를 찾는다. 벗은 마음이 통한다. 종적(蹤跡)이라는 시어에서 우리는 자아가 그다지 바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의 마음속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 기구와 승구는 자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흥체(興體)가 아니라 부체(賦體)이다. 주변 경관의 묘사 없이 곧바로 자아 자신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전구(轉句)에 가면, 뜰 가득 비추는 밝은 달이 배나무에 걸렸다고 하였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 배경이 나타난다. 시간은 밤이고 공간은 자아의 집이다. 승구의 판단유보(判斷留保)의 상태가 전구에 가면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 전구의 명월(明月)이라는 시어가 그 분위기를 반전한다.

결구(結句)에 가면 겉으로는 자아가 다시 판단 유보 상태로 그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자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판단하고 있다. 옛날에도 지금처럼 배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라 하였지만, 옛날에도 배꽃은 피었기 마련이다. 자아가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때 자아의 정신이 맑고도 깨끗하다. 그 분위기 또한 차분하면서도 조용하다.

#### 4. 맺음말

이 논문은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걸쳐 살다간 목계(木溪) 강훈(姜渾: 1464~1519)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목계가 전형적인 영남 사림파의 학맥을 잇고 있다. 그의 스승이 점필재 김종직이었으며, 그와 절친한 벗이 권오복(權五福)·김일손(金翹孫)이었고, 홍귀달(洪貴達)과도 친분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대과에 장원 또는 갑과 2등으로 급제하여 그 총명함을 드러내었다. 목계 또한 생원시에 장원하였으니 그 영특(英特)함은 이들과 대등하였다.

시풍 면에서 보면 목계의 시는 여느 사림파 또는 도학파의 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목계의 시에는 진지하거나 심각한 면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시에는 이성(理性)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感情)이 우위에 있다. 그의 시풍은 사림파 또는 도학파의 시풍이 아니라 사장파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미지 면에서 보면 어둡거나 침울한 이미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시는 누(樓)·정(亭)·당(堂)·헌(軒) 등의 건물이나 강(江)·포(浦) 등의 자연경관에 대하여 읊은 시가 많다. 넷째 그가 문학에 있어 이원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작가가 좋은 시대를 만났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작품과 문학관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그의 시를 이루고 있는 시어가 비교적 평이(平易)하다. 그가 어려운 고사나 단어를 쓰지 않고 쉽게 시를 지었다. 이는 곧 그의 언어구사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

시에 나타난 정신은, 첫째 사실적 묘사와 낭만정신이다. 그의 시는 대부분 직설적이면서 사실적(寫實的)으로 어떤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의 낭만정신이 드러나고 있다. 둘째 그가 구사한 시어는 그 분위기가 대부분 밝다. 이 안에는 그의 자연과 순화(順和)하려는 정신이 들어 있다. 셋째 회화나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그의 시는 대부분 7언 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그의 성격이 조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시에는 그의 온유(溫柔)한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넷째 긍정적 세계관과 초월의 정신이다. 그의 시를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긍정적이다. 그가 세상의 풍파를 겪고 난 뒤 지은 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월의 정신이 나타난다. 그가 한 때는 두 임금을 섬긴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목계 강혼의 시와 시풍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조선 전기·중기의 학파를 사림파와 훈구파, 도학파와 사장파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姜 渾, 『木溪逸稿』(『韓國文集叢刊』 17)  
郭鍾錫, 『侏宇集』(『韓國文集叢刊』 340)  
權五福, 『睡軒集』(『韓國文集叢刊』 17)  
金駟孫, 『濯纓集』(『韓國文集叢刊』 17)  
朴東亮, 『寄齋雜記』(『大東野乘』 8)  
魚叔權, 『稗官雜記』(『大東野乘』 1)  
俞好仁, 『潘谿集』(『韓國文集叢刊』 15)  
鄭汝昌, 『一蠹集』(『韓國文集叢刊』 15)

### 2. 논저

- 鄭景柱,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서울: 법인출판사, 1993.  
崔異敦, 『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研究』, 서울: 일조각, 1994.  
申太永, 「木溪 姜渾의 생애와 경문」, 『南冥學研究』 제20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5, 173-199쪽.  
(UCI: G704-001230.2005..20.006)  
黃義東, 「晉州 姜門 유학자들의 학문과 사상」, 『韓國思想과 文化』 제50집, 韓國思想文化學會, 2009.  
(UCI: G704-000697.2009..50.013)  
李九義, 「濯纓 金駟孫의 시에 나타난 精神世界」, 『東方漢文學』 제41집, 東方漢文學會, 2009, 7-41쪽.  
(UCI: G704-000973.2009..41.009)  
\_\_\_\_\_, 「佔畢齋 金宗直의 「和陶淵明述酒」 詩에 나타난 자아의 정신」, 『韓國思想과文化』 제52집, 韓國思想文化研究院, 2010, 7-41쪽.  
(UCI: G704-000697.2010..52.011)  
\_\_\_\_\_, 「潘溪 俞好仁의 「花山十歌」 攷」, 『韓民族語文學』 제56집, 韓民族語文學會, 2010, 237-268쪽.  
(UCI: G704-001066.2010..56.013)  
\_\_\_\_\_, 「潘溪 俞好仁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韓國思想과文化』 제52집, 韓國思想文化研究院, 2010, 33-76쪽.  
(UCI: G704-000697.2010..53.011)



| Abstract |

## The Spiritual Sphere in MokGye KangHon's Poetry

Lee, Ku-eui

This article aims to discover mentality of MokGye KangHon, who lived in the middle of Chosen Dynasty. This article will summarize and discuss his writing style and his mentality.

MokGye inherited thoughts of typical YeungNam scholars. His writing style differs from any other scholars. Those differences are mentioned in followings. Firstly, his poems are metaphorical and humane rather than philosophical or natural. Secondly, it is hard to see sad or depressing words in his poems. Thirdly, when looking at the poems that he wrote is based on nature poetry. Lastly, he used plain language in his work. He did not use any complicated words when he wrote poems.

The mentality of MokGye can be seen his poems in several ways. firstly, it is very realistic and romantic. Subjects in his poems are depicted directly and realistically. Throughout his style, it is possible to feel that he was in favor of romanticism. Secondly, the words he used in the poems are bright and delightful.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he encompassed his way of thinking because he had gone through difficulties in life. This contributed to him to realize about the world. His poems were written after experiencing hardships, thus his mentality can be seen in his work.

To summarize, this article sought to explore his poetry style. Throughout analysis of MokGye or this, it is shown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school of thoughts in the middle of Chosen dynasty. Therefore, more detailed research would be needed in order to classify scholars in that era. The limitation which is mentioned above will be dealt next time.

**Key words** : Spiritual sphere, Styles poetry, Being romantic, Atmosphere, Affirmation, Duality.

투고일 : 2018년 1월 15일 심사기간 : 1월 30일 - 2월 14일 게재확정일 : 2월 15일

